

고흥군, 우주·드론·스마트팜 3대 미래전략산업 박차

공영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가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3대 미래전략 산업을 축으로 한 긍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민선 8기 때 다진 발전 기반을 발판 삼아 민선 9기 출범 이후 산업, 교통, 복지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거두며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지 위상을 굳건히 다졌다.

군은 152만661㎡(약 46만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발사장 구축과 제2우주센터·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추진해 자족형 우주복합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달 1일 문을 연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스페이스 고흥'은 관련 기업 연구·업무 공간이 마련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공영민군수 민선9기 100일 청사진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산업 중심 위상 ↑

드론·스마트팜 등 기술실증 생태계 확장

신재생에너지 연금·3대 교통인프라 확충

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흥읍-봉래 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은 국가산단 준공에 맞춰 완공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와 우주선철도 건설 역시 우주발사체 물류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특화단지 조성, UAM(미래항공모빌리티) 시험·평가 허브 구축 등 무인항공



고흥군수가 민선 9기 출범 100일 맞아 출근길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연구·제조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231만4천 49㎡(70여만평)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

트팜 혁신밸리를 확대 조성해 청년 창업과 기술 실증 생태계도 넓히고 있다.

군민 생활과 직결된 신재생에너지 연금 사업도 순항 중이다. 총 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여수 해상풍력 송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해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로 4인 가구 기준 월 60만원의 기본연금 지급 기반을 다지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해의 농수산물 수출 개척,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운영,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500호 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등 정주 여건 개선과 복지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민선 9기는 고흥의 가능성을 확실한 성과로 꽃피우는 시기"라며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발판 삼아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연금, 교통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더 큰 고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곡성군, 美하와이서 고향사랑기부 新모델 발굴

어학연수·화상영어 교육답례품 추진

조상래 군수 "교육 협력 성과 도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국외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하와이 카운티와의 교류를 발판 삼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 협력에 나섰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조상래 군수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하와이 카운티를 방문해 자매결연 도시 인프라와 연계한 지정기부 사업과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 청소년 어학 등 글로벌 교육 분야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군은 하와이 카운티와의 교류를 고향사랑기부제와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와이 카운티 측에 교육 분야 연계·협력 제안서를 공식 전달하고 향후 참여 기관과 대상 학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하와이대학교 힐로 캠퍼스와 세인트 조셉 학교를 찾아 어학연수 등 현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정기부 사업 추진 가능성



조상래(사진 오른쪽서 세번째) 곡성군수가 최근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하와이 카운티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교육사업 제안서를 교환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을 타진한다.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넓히고 일상에서도 활용 가능한 온라인 화상영어 강좌 등을 교육형 답례품으로 기획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범위를 교육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하와이 방문을 단순한 친선 교류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교육 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교육은 물론 농업 등 다방면에서 양 지역이 윈(Win-win)하는 굵직한 성과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곡성군은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마을빨래방' 설치 프로젝트'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화순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4억2천만원 투입 강도간벌·나무주사 병행

2030년 청정지역 전환 목표 무단이동 금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1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오는 2030년까지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하반기 4억2천만원을 투입해 강도 높은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도곡면에서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최근 5년간 총 38그루의 감염목이 확인

됐다.

인접 사·군 확산 등으로 피해가 소폭 늘자 군은 타 시·군 경계지역과 확산 우려지역, 우량 소나무림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맞춤형 방제에 돌입했다.

올해는 '강도간벌'과 '예방 나무주사'를 병행해 매개충 서식 환경을 원천 차단하고 내년에는 재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수종전환 사업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드론·지상 예찰을 강화하고 11월

부터 간벌과 주사 작업에 돌입해 내년 감염목을 10그루 이하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특히 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약 67%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서 비롯되는 만큼, 군은 소나무류 및 화목의 무단 이동·반출 금지를 당부했다.

이밖에 소나무가 붉게 변하며 말라 죽는 등의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화순군 산림과(061-379-3713)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조미하 산림과장은 "철저한 예찰과 선제 방제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성공적인 청정지역 전환을 위해 산주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시의회, 비를라카본

가스 누출 사고 현장 점검

환복위, 작업 상황·사후조치 등 파악

유해물질 확산 차단·정보 공개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는 15일 "최근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비를라카본코리아㈜ 가스 누출 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진〉

앞서 지난 12일 비를라카본코리아에서는 배관 부품 교체에 관한 해체 작업 중 부생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3명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서 산소 치료를 받았다. 위원들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경위와 조동 대응 과정을 보고받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설비, 작업 절차, 근무 여건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물질의 외부 확산과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 시설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주변 환경 영향 측정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관계 부서에도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최정필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는 산단 내 노동자 사상 사고는 현장 안전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는 엄중한 신호"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이 더 이상 위협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순천시, 코스트코 입점 대비 상생협의체 출범

소상공인 등 21명 참여 상권 보호 논의

전통시장 상생·고용 등 7대 과제 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15일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 대비 지역상생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중소 유통업체 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21명으로 꾸러졌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코스트코 입점 추진 현황과 진행 중인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전통시장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상품·기업 판로 지원, 공동 상권 활성화 등 7대 분야 핵심 상생협력 과제가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업종에 대한 보호 대책, 코스트코 지역 경제 기여 방안 의무화, 타 지역 우수 상생 사례 벤치마킹 등 의견이 쏟아졌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추가 보고와 협의체 심층 논의를 거쳐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코스트코 측과 오는 2027년 공식 상생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순천호 순천시장은 "초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 있는 만큼, 상인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마련되도록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담양군, 신규·회계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15일 "최근 소속 회계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 및 회계 지출의 이해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교육은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잦은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강사이자 18년 경력의 배태광 퇴직 공무원인 김흥현 재무회계컨설팅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 세

출예산 지출 절차, 주요 과목별 회계처리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예산 편성 시 흔히 범하는 오류와 잦은 감사 지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담양군 관계자는 "회계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치의 오차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라며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실무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주말 확대 운영

24일부터 12월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15일 "가을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을 덜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소 방문·전화나 스마트폰 챗봇, 사업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현재 장흥 본점과 남부(관산)·북부(장동) 등

3개 임대사업소에서는 총 50종 508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해 임대하고 있다.

올해 농업기계 임대 실적은 3천723건, 4천723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기계 운반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에는 배송료 50% 감면 서비스를 제공해 영농 편의를 높였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번기 주말 확대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절감을 이끌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